

무용예술학연구 제24집 여름

## 동래권변에 관한 연구

- 학습내용과 기생의 활동 중심으로 -

이주희\* · 추정금\*\*

중앙대학교

I. 서론	V. 결론
II. 동래권변의 설립과 현황	참고문헌
III. 동래권변의 학습내용	Abstract
IV. 동래권변 기생의 활동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의 우리의 대표적인 무용이라 할 수 있는 살풀이와 승무 그리고 그 밖의 전통춤은 교방이나 일제시대 춤 교육을 담당한 권변(券番)의 기생(妓生)들에 의하여 교습(敎習)되어 성장해 왔다. 권변은 교방(敎坊)의 후신으로 일제 강점기에 기적(妓籍)<sup>1)</sup>을 올리던 조합(組合)이며 일제시대 탄생한 명칭이다. 조선조 말 한일 합방 이후 교방이 폐지되고 일제의 민족 문화말살정책으로 인하여 우리의 예술은 점점 쇠락하고 급기야는 중단되고 말았다. 일제 강점기라는 특수한 시대적인 상황에 부딪쳐 우리의 예술이 끊어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권변이라는 특수한 곳에서 예술은 어렵게 그 맥을 이어갔다. 그 당시 부산의 예술도 마찬가지로 권변 기생들의 학

\* 중앙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 중앙대학교 석사

1) 기적(妓籍)-기생으로서 등록되어 있는 소속, 또는 기생들을 등록해 놓은 대장

습에 의하여 명맥을 이어 왔다.

부산수사 산하의 교방청은 한말까지 지속돼 오다가 1910년 한일합방과 더불어 해체 되었고 그 산하에 있던 관기(官妓)들은 1910년 동래기생조합(東萊妓生組合)을 형성하고, 1912년에는 동래예기조합(東萊藝妓組合)으로 이름을 바꾸어 명륜동에 자리 잡았다. 이러한 동래예기조합은 얼마 후 동래권번으로 개칭되었다. 동래권번은 부산 지역의 최초의 권번이며, 또한 일제시대 때 부산 동래구 온천장을 무대로 전국적인 명성을 떨쳤다. 하지만 지금은 사단법인 『동래국악진흥협회』로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동래권번에서 학습되어졌던 승무·살풀이·굿거리(입춤)·고무는 오늘날 한국 전통 춤의 한 획이 되었으며, 현재 무형문화재로도 지정되어 있다.

이렇듯 일제 강점기 시대의 기생 춤은 한국무용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능 전승의 기능을 해온 권번과 관련된 기생은 편협(偏狹)한 사회 인식으로 인해 인정을 받지 못했으며 낮은 신분 밖에 가질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예술문화는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가치로 평가 받고 있지만 권번 그 자체에 대한 연구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선행연구에서 권번에 대한 연구의 절대적인 부족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앞으로 한국무용사에서 역사적인 연구가치가 있는 권번의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다. 따라서 보고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동래권번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그 가치를 재조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 2. 연구 방법 및 제한점

본 논문은 문헌분석의 방법으로 연구하였으나, 일제 강점기라는 열악한 시대적 상황과 권번연구의 등한시로 인해 자료가 부족하였다. 무용학술지와 신문자료를 참고하였으며, 그 당시 경성을 비롯하여 전국 권번의 실태와 각 권번 소속 기생들의 이력과 예능 특기를 기록하고 있는 『조선미인보감(朝鮮美人寶鑑)』을 참고 하였다. 그리고 현재 부산에서 활동하는 동래권번의 마지막 소리꾼인 유선화와 동래권번출신은 아니지만 동래 전통예능의 산증인이자 그 당시 권번출입을 했고 또한 동래 한량무를 만든 문장원(중요무형문화재 18호 東萊野流 예능보유자)과의 인터뷰를 중심

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자료의 고갈과 현존하는 동래권번 출신들조차 많지 않았으며 고령화로 인한 녹취의 어려움 때문에 동래 권번의 모든 연구가 이루어지기는 힘들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습내용과 당시의 동래권번 기생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연구의 제한을 두고자 한다. 또한 동래권번이 생긴 1910년부터 1945년 광복까지를 연구의 시점으로 한다. 동래권번과 관련된 현존 예능인들의 소재지가 경상도였기 때문에 경상도 방언을 여과 없이 본고에서는 인용 하였으며, 동래권번의 마지막 소리꾼인 유선화의 인터뷰에서 유선화라는 인물은 실존인물이나 실명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요청에 의해 유선화라는 가명으로 본고에서는 표기 한다.

## II. 동래권번의 설립과 현황

옛 이름이 동래(東萊)였던 부산지역은 예로부터 놀이 문화가 풍성하였으며 한량 또한 많았다. 그런 지역 특색처럼 다른 지역과는 달리 부산지역의 권번 생성과 형성은 매우 독특한 양상으로 전개 되었다.<sup>2)</sup>

동래권번이 생성되기 이전, 지금의 부산이 동래군 이라고 불리어지던 시절의 동래 기생은 전국적으로 유명했다. 조선시대에 교방기생을 둔 곳이 다섯 곳 있었다. 서울은 임금이 계시는 곳이라 하여 약방기생이라는 교방이 있었고, 경주에는 좌교방, 평안북도 선천에는 우교방이 있었다. 동래와 의주(義州)에는 외교관 접대를 위한 기생이 있었는데 동래의 관기는 일본에서 오는 사신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의주의 관기들은 중국에서 오는 사신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있었다.

항구 도시인 동래는 일본과의 활발한 교류와 함께 거대 도시로서의 상업이 발달하게 되자 자연스레 관의 역할이 커지고 그로 인해 교방의 역할과 기생의 역할이 증대 되었다. 이런 교방의 역할 증대와 더불어 많은 한량들이 있었던 동래 지역에는 부산수사 산하에 교방청이 있었다. 이 교방청 소속 관기들은 전통 기악(器樂)과 창

2) 성기숙(1999). 『한국전통춤 연구』(서울:현대미술사), pp.474~475, 참조

(땀), 춤을 교방에서 익혔으며 그녀들은 교방에서 익힌 국악을 연주해 조정에서 내려온 고관(高官)과 지방관아의 원님과 정담(政談) 사이에 끼어들어 그 정담을 유연하게 이끌어 주고, 외국사신과 외교절차상의 정치협상 때도 기악과 창과 춤으로 이야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다.<sup>3)</sup>

그러한 관기 제도가 1910년 한일합방과 더불어 해체 되자 아전집안 자손들과 유자들 자식들 중 풍류를 즐기던 소위 한량들이 돈을 모금해 동래권번의 시초인 동래기생조합을 만들었다.<sup>4)</sup> 이때에 동래 교방청에 소속 되어 있다가 신분이 자유로워진 관기들과 그녀들의 양녀(養女)들을 동래기생조합에 받아들여<sup>5)</sup> 동래 교방청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였다.

동래권번의 1910년 창립될 당시의 명칭은 동래기생조합이었으며 2년 뒤인 1912년에 동래예기조합으로 이름을 바꾸고 오늘날의 동래구 명륜동357번지(현 중앙의원)에 자리 잡았다.<sup>6)</sup> 그러나 중일전쟁(中日戰爭)이 일어났을 무렵 온천장의 여관업자들의 요청으로 동래온천장(東萊溫泉場, 오늘날 온천동 210번지)으로 옮겨졌다.<sup>7)</sup>

온천장으로 옮겨진 동래예기조합은 8·15 해방 때 까지 동래권번(東萊券番)이라 불리었는데 이것은 일제가 일본식 명칭으로 통제한 까닭이다. 동래권번이 생긴 5년 뒤인 1915년에는 봉래권번이 생겼으며, 그 뒤에 초량권번을 개설하게 되었는데, 동래권번은 일제시대 부산지역의 권번들 중 제일 먼저 생긴 권번이며 그 규모 또한 가장 컸다. 그 당시 동래온천에는 동래권번 말고도 일본 기생들이 모인 집단인 오끼야(置沃) 권번이 있었다. 이 오끼야권번에서는 일본의 동기(童妓)들에게 일본 전통 악기인 샤미센(三味線)을 연주하며 일본 기모노(着物)를 입고, 봉오도리(盆踊)란 춤을 가르쳐 술자리의 여흥을 삼고 술시중을 들게 하였다. 동래권번은 동래온천의 또 다른 권번인 오끼야 권번에 맞서 우리 국악을 신장하며 부산 전통예능 전승의 큰 역할을 하였다.

일제는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 권번조합에 압력을 가였다. 일본식의 노래와 춤을

3) 동래구지편찬위원회(1995). 『東萊區誌』(서울:釜山廣域市 東萊區), p.605

4) 성기숙 “전계서”, p.476

5) 동래지편찬위원회(1983). 『동래』(부산:세명출판사), p.418

6) 앞의책, p.418

7) 동래구지편찬위원회 “상계서”, p.605

배워 일본식 놀이를 하라는 것과, 또한 여자 청년단을 조직하여 일본식 훈련을 하라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모두 정신대로 데리고 간다는 것이었다. 그런 위협에 동래권번은 차일피일 날짜를 미루거나 권번조합을 임시로 비우기도 하는 우여곡절 속에서 우리 국악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광복 후에도 동래권번을 포함하여 많은 권번들이 지속되어 왔으며 봉래권번과 부산권번의 경우에는 6·25 전까지도 존속되어 오다 전쟁이 끝난 후에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동래권번의 경우에는 5·16 군사 혁명 후 부터 우리 고유의 국악을 살리자는 취지로 국악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가 1970년에는 주식회사가 되면서 『동래국악원』으로 지금은 사단법인 『동래국악진흥협회』로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sup>8)</sup>

### III. 동래권번의 학습내용

#### 1. 기생들의 학습배경

동래권번은 동래지역의 전통예술 학원이자 또 하나의 전통예술 학교였다. 동래권번의 입학 시기는 일찍 들어가면 7, 8세 때부터였고, 보통의 기생들은 초등학교를 졸업 한 나이인 13세~15세 정도 입학했다. 입학생 수는 대략 200명이나 되었으며, 또한 예기의 수는 약 150명 정도였는데, 이 인원수로 보아 그 당시의 동래권번의 적지 않은 규모를 짐작 할 수 있었다.

『조선미인보감』에 의하면 경성부에는 한성권번, 대정권번, 한남권번, 경화권번이 있었고, 지방에는 대구, 김천, 동래, 창원, 광주, 수원, 평양, 진남포, 개성, 안성, 연기 등에 권번 내지 조합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예기들의 숫자는 경성부 곧 지금의 서울이 470명이므로 전국적으로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었고, 지방의 기생조합에 소속된 기생들은 20%에 해당 되었다. 경성부의 권번 중에서도 대정권번의 예기들이 18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한성권번이 175명, 그 다음으로 한남

8) 최해군(1997). 『釜山 7000年, 그 영욕의 발자취』(부산: 부산을 가꾸는모임), p.258 참조

권번이 75명, 경화권번이 39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지방 권번들 중에서 예기의 수는 수원 조합이 33명, 대구조합이 32명, 그 다음으로 동래권번이 13명이었는데, 1918년 당시의 동래권번이 적지 않은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동래권번의 입학당시의 입학금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확실히는 알 수 없었다. 동래권번의 입학은 7, 8세부터였고, 3년 동안 기예를 닦아야 졸업을 시켜주었다. 보통 15, 17세 쯤 되면 졸업을 하는데, 졸업하고 하고 나면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나는 사람도 있었으나, 대부분이 예기가 되었다.

... 일곱 여덟 살 때부터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장성 하는 거야 ....<sup>9)</sup>  
 ... 입학생 수가 200명 정도 있었지 ... 그라고 3년을 해야 졸업을 시켜주고  
 ... 입학금 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 학원 같은 건께 쪼매 안 있었겠나?  
 ... 초등학교 나오면 다 들어 왔지. 우리 할매들 공부들 시켰나? 이름 석자면  
 쓸 줄 알면 된다 ...<sup>10)</sup>

동래권번에서 기예를 익힌 기생들은 또 하나의 관례가 남아 있었다. 즉, 기예를 익힌 후 곧장 예기로서 놀음을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반듯이 화초머리를 엮어야 요리점에 나가서 손님을 접대 할 수 있었다. 머리를 엮는다고 하는 것은 돈 많은 부류인 소위 그 시대상류층 인사들에게 자신의 정절을 주고 돈을 받고 머리를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화초 머리를 엮음으로써 진정한 기생이 되는 것이었다. 화초머리를 엮고 나면 권번 소속 선배기생들에게 한잔 내기도 하였다. 이런 것이 권번의 제도라고 정해지진 않았지만 권번의 관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열 서넛 살 때부터 거 들어가 열여섯 일곱 쯤 되면 거기서 배우는 거 다 배우고 나면 머리를 엮어야 해 ... 머리를 엮어야 요정에 나갈 수 있다. 손님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예전에 화초머리라 하는 것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영감들이 돈을 있는데. 저게 머리를 엮어야 돈을 벌수 있는 데, 그 영감들한테 가가 “아 할아버지 화초머리를 엮어 줄소” 머리를 엮는다 하든 시집을 가는 거라 한가지거든 ... 들어 가가 자고 나면 그 다음 권번에 전체 있는 선배들에게 한잔 내고, 그래가가 머리를 엮으면 머리를 엮은 그 돈 가지고 손님들한테 가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온갖 거 다 하는 게 권번의 제도야...<sup>11)</sup>

9) 문장원 인터뷰. 2004. 10. 27

10) 유선화 인터뷰. 2004. 11. 9

11) 문장원 인터뷰. 2004. 10. 27

이렇게 기생들은 빠르면 7세, 8세 때 권번에 입학하여 연령제한이 없는 권번에서 예기로써의 생을 마쳤다. 권번은 동기들이 성장하고 전통 예능을 배우는 하나의 학교였으며, 예기로써 화대를 받으며 운택한 삶을 살아가다 거기서 일생을 마치게 되는 또 하나의 삶의 터전이었다.

## 2. 학습내용

### 가. 가(歌)·무(舞) 학습

동래권번의 학습 내용 중 가장 많이 학습된 내용은 예기(藝妓)의 기본인 가무(歌舞)였다. 『조선미인보감』에 수록된 동래권번의 기생들 중 가장 나이가 어린 기생 김영월(金映月)과 권번에 들어 온지 얼마 되지 않은 기생 김옥선(金玉仙)의 기예는 가무였다. 기본적으로 권번에 들어오면 자연스레 가무가 학습 되어 졌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조선미인보감』에 수록된 동래권번 기생들은 총 11명인데, 기생들의 특기사항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역시도 가무였으며, 김영월, 조수련(趙水戀), 리춘선(李春仙), 김부용(金芙蓉), 김옥선, 정룡월(鄭弄月), 방월향(方月香), 신류선(申柳仙), 김계월(金桂月) 등 총 9명의 기생들의 특기사항에서 가무가 포함되어 있었다.

- 13세 김영월(金映月): ...방년 겨우 열세 살 ... 일취월장가무기능,...  
 16세 조수련(趙水戀): ...예약쇼에 들어가서, 가무음률비은 후에,...  
 16세 리춘선(李春仙): ...기성나와, 가무음률린습후후,...  
 17세 김부용(金芙蓉): ...이리히슬제 가무공부 작란삼아 익혔더니, 지금와서 생각하니....  
 17세 김옥선(金玉仙): ...하류계에 득밍코자, 염증임시공부하야 가무음률의 힌후에,...그찌나히십늑세라....  
 18세 정룡월(鄭弄月): ...예약쇼를 설립하야, 천홍만즈, 관리하며, 가무일등음률일등...  
 18세 방월향(方月香): ...우리시골예약쇼에, 가무공부힘껏세라...  
 19세 신류선(申柳仙): ...울산조합에 들어간후, 가무공부힘쓰노라....  
 19세 김계월(金桂月): ...소리비고춤을 배워....<sup>12)</sup>

12) 朝鮮研究會. 『朝鮮美人寶鑑』, 1918

가무가 특기인 것은 동래권변 뿐만 아니라 다른 권변 기생들의 특기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기생의 학습 내용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써 권변의 모든 기생들이 학습 받는 것이 가무이다. 이 가무에서 가에 해당하는 것은 가사와 수신시조, 잡가이고, 무에 해당하는 것은 장삼무, 승무, 입무, 남무, 검무, 춘앵무, 무산향, 남무바지, 남중속무(살풀이춤), 정재무, 서양무도, 내지무 등이다.<sup>13)</sup>

그러나 동래권변에서 제일 으뜸으로 치는 기예는 판소리였다. 기생들이 놀음을 나오면 제일 많이 하는 것 또한 판소리였다. 그뿐만 아니라 권변 입소 후 제일 먼저 배운 것이 판소리며, 판소리 학습을 하고 나서야 무용이나 다른 음률을 배울 수 있었다. 판소리의 경우에는 판소리 5바탕인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적벽가, 수궁가를 불렀으며, 그 외에 안중근 역사가나 육관순 역사가도 배웠다.

... 아침 한 아홉시가 되면은 모두 공부하러 간다고. 선생님이 앉아 계시거든. 요새 같으면 판소리 공부해요 ... 그때는 육바탕 하는 별반 안했고 흥보전, 심청전, 춘향전, 안중근 역사가 육관순 역사가 배웠다. ... 제일 첫머리는 판소리 공부 하지. 판소리 공부부터 해가지고 ...<sup>14)</sup>

... 배운 것은 가무하고 전체적이야 우리나라 전통 소리아 판소리 육바탕 다 있으니까. 우리나라 판소리 춘향전, 적벽가, 흥보가, 심청전 이런 기 오바탕이 있어 ...<sup>15)</sup>

동래권변에서는 판소리가 제일 먼저 학습 되었으며 판소리를 배운 후 무용이나 음률 등의 다른 예기를 배울 수 있었다. 판소리는 동래권변의 기본적인 학습과목인 동시에 필수과목이었다. 판소리를 배우고 나면 각자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기예를 학습했다.

판소리 말고도 많이 불려 진 것은 민요이다. 민요는 판소리를 기본으로 습득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것으로 생각하여 대체적으로 예기로서 큰 비중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동래권변에서 불려 진 민요는 부산 지방이나 인근 지방을 매개로 것으로 성주풀이,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 양산도 가락을 모태로 한 민요 또는 타령 종류의 민요가 많이 불리어지고 학습되었다.

13) 김영희(1999). "일제시대기생조합의 춤에 대한 연구" 『무용예술학 연구』 제3집 봄, p.66

14) 유선화 인터뷰. 2004. 11. 9

15) 문장원 인터뷰. 2004. 10. 27



... 전부 판소리아. 잡가 남도 잡가라 하나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 꽃타령이니 무슨 타령이니. 그때 내가 다 못 외우지만 기생들이 부르는 잡가, 남도 잡가 이렇게 더러 있고 ... 양산도니 노래 가락 서울 노래 가락이 있고 창법이 다 다르긴 달라 ...<sup>16)</sup>  
 ... 우리 민요라. 성주풀이, 진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양산도 ...<sup>17)</sup>

동래권번의 학습내용 중에서 무용은 판소리에 비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판소리를 학습한 후 각자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예기를 선택하여 학습하였기 때문이다. 문장원은 무용의 경우 주로 기본무가 학습되었으며 기생들이 기방 밖에서도 기본무를 추었으며 기본무 외의 살풀이, 승무, 입춤, 고무 등은 기방에서 가르치는 선생들의 하나의 작품이라고 했다. 그러나 유선화는 동래권번 입소 때부터 기방 살풀이, 소고놀이 춤, 북춤, 화관무, 검무 등이 학습되었다고 한다.

... 기본이지 거기서부터 ... 살풀이라던지 승무라던지 근대화 와가지고 춤이 그래 된 거지 춤을 배워가지고 소위 제목이 붙을 수 있는 춤을 살풀이를 배운다는 것은 작품이니까. 태평무도 작품이고 승무도 작품이고 ... 그건 아니고 기본무만 ... 동래권번에서는 그 이후는 살풀이도 추었고, 승무도 추었고, 고무도 추었고, 고무라는 것은 북춤이야. 이런 거를 하지만, 이전에 탄대도 다 하고 있어. 그럼 통영 같은데도 북춤을 추고 이순신 장군이 승전하고 나니까 화관무 라는 게 다 있어. 꽃을 가지고 춤을 추는 게 있었다는 거 뿐이지. 동래권번에서 서서히 알아가지고 창작을 해가 배워 졌으니까. 창작을 했던지 말았던 간에 어찌든 100년 전에서 있는 일이라고 하면은 우리 전통 무용 되고 말았는 기라. 승무하고 살풀이하고만 전통이 아니고 그 뒤에 선생들이 안 있는 솜씨가 있어가 자기가 창작을 해가 취 내려 오기를 근 100년이나 넘어 났다고 할 때, 한국 전통 무용이라고 보고하는 기라 이름이 자동적으로 지어 지는 기라...<sup>18)</sup>  
 ... 기방 살풀이, 소고가가지고 소고놀이 춤이고, 북춤도 있고, 요새는 북춤이 요새 화관무 택이라. 춤무 검무요. 동래 팔검무가 다 있었더라고 춤무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있었더라고 ...<sup>19)</sup>

문장원과 유선화의 인터뷰에서 학습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6) 문장원 인터뷰. 2004. 10. 27

17) 유선화 인터뷰. 2004. 11. 9

18) 문장원 인터뷰. 2004. 10. 27

19) 유선화 인터뷰. 2004. 11. 9

문장원이 권번을 자주 출입 한 년도가 1930년대 초·중반이고 유선화는, 권번에서 학습을 받은 것이 대략 1940년대 중반이기 때문이다. 1930년대 권번에서는 기본을 중점으로 가르쳤으며, 유선화가 입학한 시대인 1940년 대 이후로 무용이 조금씩 작품화 된 것으로 짐작한다. 예를 들어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면 소고춤, 북을 가지고 춤을 추면 고무, 그리고 수건을 들고 추면 살풀이, 그리고 서서 굿거리장단에 맞춰 기본무를 추면 입춤.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춤이 다져지고 다져져서 하나의 작품이 된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동래 학춤은 권번이나 기방에 의해서 만들어진 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래 학춤의 경우에는 지역 전통 예능의 한 몫을 해 온 한량들이 학을 보고 춤을 구상하여 창작되어진 춤이었다.

...동래 학춤 하는 것은 그 이외의 한량들이 많으니까네. 이자 학이 나르는 모습을 보고 저것을 조래 춤을 만들며는 되겠다. 한량들이 학춤을 만든 거예요. ...<sup>20)</sup>

이렇게 동래권번의 학습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주로 학습되어진 것은 가무였다. 그리고 그 가무 학습 중 동래권번에서 가장 으뜸으로 여겨진 것은 판소리였다. 판소리를 예기의 기본으로 삼아 학습한 다음, 기생들 각자의 특출 난 기예를 중점으로 판소리를 제외한 여러 다른 전통 예능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민요의 경우에는 부산과 인근 지방을 매개로 한 내용의 민요들이 많이 학습 되었다. 무용의 경우 권번 생성 초기에는 기본무가 학습 되어지다가 1940년대를 넘으면서 기본무가 권번의 선생에 의해 창작·작품화 되어 학습되어 진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가무는 동래권번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학습내용 중 하나였던 것이다.

#### 나. 음률(音律) 학습

『조선미인보감』에 의하면 동래권번 기생들의 기예나 특기사항으로 음률(音律) 학습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의 음률이란 기악(器樂)을 가리키는 말로서 거문고, 가야금, 양금, 생황, 단소, 사미센이 해당된다. 음률 악기 중 일본 전통 악기인 사미센을 가르친 것은 일제 강점기의 시대 반영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석 된다. 그 외에도 일본춤과 그 시대에 유행하던 가곡을 학습하였던 것을 황옥매(黃玉梅) 기생

20) 유선화 인터뷰. 2004. 11. 9

의 특기에서 알 수 있다.

19세 황옥매(黃玉梅):...기능으로 말<sup>ㄱ</sup>야도, 일본춤과 모든가곡, 신선진미  
보다일어 ... 툃도범결말 <sup>ㄱ</sup>야도 ...<sup>21)</sup>

동래권번에서는 기본적으로 판소리를 배우고 난 뒤 각자의 소질 여부에 따라 무  
용과 음률이 학습 되어졌다. 그러므로 모든 기생들이 음률을 배웠다고 할 수는 없  
다. 당시 동래권번에서는 거문고와 가야금을 많이 학습하였는데 이는 가야금의 명  
인인 강태홍<sup>22)</sup>이 동래권번의 선생으로 있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 기악은 가야금을 배운다던지, 거문고를 배운다던지, 해금을 배운다던지,  
양금을 배운다던지...<sup>23)</sup>

이렇듯 동래권번에서는 가무 학습이 주를 이루었으며 음률학습은 부수적인 것이  
었다. 그러나 예기들이 기예를 행할 때 악사들을 따로 불러 연주하는 형태가 아닌  
권번소속 기생들이 악사의 역할도 같이 겸했기 때문에 동래권번의 학습내용 중 이  
음률은 가무 학습 보다는 그 중요성이 다소 떨어지나 꼭 필요한 학습 과목이었을 것  
으로 사료된다.

#### 다. 예절(禮節), 한자(漢字), 서화(書畵) 학습

예절은 기생의 기본적인 필수 조건이며 사항이다. 기생의 경우 손님들을 접대하  
는 일은 놀음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손님 접대 예절을 철저하게 배운 것이 사실이  
다. 손님 접대 예절뿐만이 아니라 선생의 대한 예절도 무척이나 엄격했다.

... 예절 배울 사람은 예절 교육을 받으러가고, 여자는 반드시 예절을 배워  
야 하거든. 옷 사람이 오며는 반드시 일어서서 “오셨습니까?” 인사들이고  
자리 만들어 드리고... 요새는 아들 옷 사람와도 선생님 “오셨습니까? 선생  
님” 이래 한다 아니가, 우리는 선생님 오셨습니다. 신발 빼들어지면 이래 놓

21) 朝鮮研究會, “전계서”

22) 강태홍 [姜太弘, 1894~1968] : 가야금산조의 명인. 전남 무안(務安)에서 태어났다. 김창  
조(金昌祖)에게 가야금산조를 배운 뒤 자신의 독특한 유파를 개발하였다. 가야금병창에  
서도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였고 신작(新作)에도 능하였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성악연구  
회에 여러 차례 출연하였으며 산조와 병창을 음반에 취입한 바도 있다. 제자로는 산조에  
원옥화(元玉花), 병창에 박귀희(朴貴姬)가 있다.

23) 문장원 인터뷰, 2004. 10. 27

고 지자리 알아야지. 앉아서 보고, 뻘히 쳐다보고 인사 어딴노?<sup>24)</sup>

또한 예법을 가르치는 예지원이라고 하는 곳도 조선시대의 기생들에 의해서 비롯되었다. 일제 강점기 때의 권변에서도 예법 교육은 엄격하고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래서 예법을 모르면 기생을 할 수 없었으며 예법에 어긋난 일을 하면 매를 맞기도 하였다. 권변의 학습내용 중의 하나인 예법교육은 기생이 되기 위한 하나의 필수과정이었으며, 진정한 예기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었다.

... 예지원하는 게 우리나라 조선조 때 예법을 가리키는 거라. 기생들이 예법을 모르면 매를 맞아 ... 제자와 선생도 그만당 부모다움으로 가는 이런 것을 알고 기생질을 해야 하고...<sup>25)</sup>

동래권변에서는 예법만 배운 것은 아니었다. 묵화 치는 것과 붓글씨도 배웠다. 조선미인보감에 수록된 동래권변의 기생 중 김계월(金桂月)의 특기에서는 붓글씨와 서화(書畵)를 볼 수 있었으므로 많은 기생들에게 학습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렇듯 동래권변은 기예만을 익히는 학습 장소는 아니었다. 예기로서 당연히 지녀야 할 가무와 음률 뿐 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절과 서화 그리고 한문 공부까지 하는 학교 이자 학원이었다. 일제 강점기에 동래권변에서 이루어진 학습은 가무가 주를 이루었는데 가장 기본으로 학습되어진 판소리를 기본으로 여러 민요와 승무, 살풀이, 입춤, 검무, 화관무, 소고춤, 고무와 음률에 해당하는 거문고와 가야금, 양금, 생황, 사미센과 예절 학습인 붓글씨, 서화 그리고 일본춤까지 학습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3. 학습방법

동래권변에서는 모든 기생들에게 판소리가 기본적으로 학습되었으며, 판소리 학습 외의 나머지는 기생들의 잘하는 기예를 찾아서 기생들이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웠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동래권변의 기예 학습 방법은 능력별 학습을 하였으며, 권변에 입학한 기생이 하고 싶은 기예를 자신의 의지대로 배울 수 있었다.

24) 유선화 인터뷰. 2004. 11. 9

25) 문장원 인터뷰. 2004. 10. 27

... 요새 같으면 판소리 공부해요. 그게 한 시간 내지 두 시간하면은 춤 출 사람은 춤을 공부 하러가고 또 예절 배울 사람은 예절 교육을 받으러가고 ... 지 재능에서 하는 것이지 굳이 악기 배우고 하는 것은 없었어요 ... 지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다. 예절부터서 다 할 수 있지. 목화 치는 거 한 문공부, 소리공부, 춤 공부. 지 재능 없으면 못하고 지 재능 있으면 다 하는 기라 ... 제일 첫 머이는 판소리 공부 하지. 판소리 공부부터 해가지고 이 단계는 춤을 전공 하고 싶으면 춤을 추고 역사가 같은 것은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니라. 소리가 안되겠다 싶으면 니 춤 해라 ...<sup>26)</sup>

동래권변의 필수 과목이라 할 수 있는 판소리를 배운 후 자신이 배우고 싶은 기예를 각 방을 찾아다니면서 배울 수 있었다. 당시 동래권변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었다고 한다. 어떤 방에서는 춤을, 어떤 방에서는 가야금을, 어떤 방에서는 판소리를... 이렇게 각 방에서 학습되어지는 기예가 달랐으며, 각 방에는 2·30명 정도의 기생들이 둘러앉아서 배우고 싶은 기예를 배웠다. 또한 그 기예는 당시 기생들의 능력에 따라 달리 학습되었다. 그러나 기예에 따라서는 어깨너머로 보고 배워 혼자 연습하고 음률을 익히는 경우도 있었다.

... 20·30명 쪽 둘러앉아서 방이 있어서 ...<sup>27)</sup>

...방이 여러 나가 있거든. 소리 배우는 사람은 소리 배우고, 춤추는 사람은 춤추는 데로 가고 ... 백 몇 명 수용하니까 아주 널러요. 이러니까 그 방에서 가야금 배우는 사람 ...<sup>28)</sup>

... 악기는요 ... 우리는 악기를 선생님 손잡고 배운 것은 없다. 보고 어깨너머로 보고, 쇠치는 것도 그렇고...<sup>29)</sup>

소리의 경우도 악기의 경우처럼 무척이나 배우기 힘들었다고 유선화는 회상한다. 그리고 소리 학습의 경우 선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학습 받으러 온 기생들 중 판소리에 뛰어난 기생이 있으면 그 기생이 조교처럼 다른 기생들을 가르치곤 했다. 가르치는 선생은 아주 극소량의 교습만을 하였고 나머지는 그 기예에 특출 난 기생이 조교가 되어 남은 기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판소리 외의 음율이나 무용 등의 기예를 배우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었으며, 그 기예의 학습이

26) 유선화 인터뷰. 2004. 11. 9

27) 유선화 인터뷰. 2004. 11. 9

28) 문장원 인터뷰. 2004. 10. 27

29) 유선화 인터뷰. 2004. 11. 9

끝날 때까지 무한한 인내와 기예를 가르치는 선생에 대한 존경심과 한 가지 기예에 혼신을 다할 각오가 있어야만 동래권변에선 배울 수 있었다.

... 가상 우리 셋이라 하면 내가 소리가 잘 하는 택이면 요새 말하면 내가 조교가 되는 택이라. 선생님은 몇 박만 요렇게 요렇게 해라 밀치놔놓고 내한테 듣고 배워라 이거야. 요새같이 끝까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여. 얼마나 배우기 힘들었다고. 몇 장단 만 해라 하고 선생님은 불일 보고 가시는 거라 ...<sup>30)</sup>

동래권변의 학습방법은 동래권변에 입소한 예기들의 기예능력에 따른 학습과목이 달랐으며, 그 중 모든 기예를 다 배울 수 있는 기생은 극소수였다. 해방 전에 능력 별 학습 방법을 채택하였다는 것에 무척이나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단 판소리는 기본적으로 권변에 입소한 모든 기생들이 배워야 하는 필수 과목이었다. 이 판소리를 기본으로 공부하면서 자연스레 장단을 익힐 수 있었으며 북이나 쟁과리 같은 것은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의 기예를 배우고, 그 기예의 달인이 되기까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 지금과 같이 단시간 내에 전통 예능의 한 종목을 배우는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동래권변은 하나의 기능별, 학습별 능력에 따라 학습방법을 달리 한 하나의 전통예술 학원이었던 것이다.

## IV. 동래권변 기생의 활동

### 1. 동래권변 기생의 공연활동

#### 가. 기업(妓業)으로서의 공연 '놀이'

일제 강점기 기생들의 공연활동 중에서 요리점이나 개인집에서 기생의 본업인 예기(藝妓)로서 노래와 춤을 공연하고 그대가로 돈을 받은 것을 소위 '놀이' 이라고 한다. 기생이 전문 요리점에 불려나가는 것을 '놀이 나간다' 라고 하였고, 개인집으로 가는 것은 '사랑 놀음 나간다' 라고 했다. 또 다른 말로 '꽃이 나간다' 는 뜻으로

30) 유선화 인터뷰. 2004. 11. 9

출화(出花)라고 하기도 했는데 이는 기생을 꽃에 비유했던 점을 떠올리게 한다. 기생들이 요리점이나 개인집에 불려가 연회를 베풀고 받는 수고료는 놀음 차, 또는 화대(花貸)라 했고 또 다른 말로는 해웃값이라고도 하였다. 소위 '놀음' 권번의 하루 일과 중 낮 시간이 전통 예능의 학습시간으로 할애되었다면 저녁시간은 기업(妓業)을 하는 '놀음' 시간으로 충당 되었다. 권번에서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교습과목을 이수한 기생들은 시내의 큰 요리점이나 개인집으로 소위 놀음을 나간다.

기생들의 놀음의 방식이나 수고료로 받는 화대의 액수는 각 권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서울의 대표적인 조선권번의 경우 기생들의 놀음차는 시간당 1원 50전이였다. 보통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시간 단위로 계산하였다. 손님에 따라 10시간 이상으로 후하게 쳐주는 수도 있었다. 놀음차는 당일 요리점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놀음을 나간 일정을 한달 단위로 기록하여 권번의 경리실에 제출하여 권번에서는 월말마다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를 기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기생들이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불하여 놀음차를 받아 갈 수도 있었다. 조선권번에서는 기생들이 출화 시간을 월단위로 계산하여 등수를 가리고 또 일 년에 한 번씩 총합하여 최고의 수입을 올린 기생을 선발하여 상을 내리는 시상제도 있었다.<sup>31)</sup>

부산 동래권번 역시 조선권번과 마찬가지로 기생들의 기예가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놀음을 허가 하였으며, 놀음 방식 또한 비슷하였으나, 다만 놀음 전 들어오는 상차림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동래권번의 경우 요리점에서는 놀음이 펼쳐지기 전에 우선 요리상이 들어오는데 이때 상은 3원·5원·10원 등으로 가격이 매겨져 있었다. 연회의 내용과 규모 그리고 참여한 기생들의 품격과 기예의 수준에 따라 값이 다르게 매겨졌던 것이다. 화대는 1시간당 1원 20전이였으며, 1시간이 경과하면 매 시간마다 80전이 추가로 환산되었다. 요리점에서 수수료 1할을 제한 뒤 권번에서 또 조합비조로 약간 공제한 나머지가 기생의 실수입이었다. 계산은 요리점에서 끊어주는 전표를 권번의 회계장부에 기록했다가 한 달에 두 번 기생에게 지급 되었다.

기생 중에 인기 높은 기생들은 권번에 나가지 않아도 며칠 전부터 온천장의 요리

31) 성기숙(2004). "일제강점기 권번과 기생의 전통춤 연구" 『한국무용예술학회 학술 심포지엄』, p.9

점으로부터 호명을 받았고 손님의 소원대로 몇 주야를 계속해서 기업을 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런 특수한 손님들은 대개 부잣집 자식들로서 시간비를 100시간 내지 200시간씩 미리 떼어주고 자기 애인을 다른 요리점에서 손님들이 불러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럴 때 손님들끼리 약이 올라 정해진 화대를 2, 3배로 올려 기생을 빼앗아 가는 일도 없지 않았다. 그 당시 기생의 수는 대략 150명가량 되었는데 권번에서는 기생들의 수입을 매월순위 성적표로 작성하여 온천 각 요리점에 회부 하였다. 이래서 인기가 있는 기생은 발표 된 시간비의 다과로써 그 이름이 알려지므로 손님들은 상위에 오를 미기(美妓)를 주석에 부른 까닭에 기생들은 각 요리점에서 화대를 현금보다 시간비표로 받아서 순위를 올리려고 경쟁이 치열 하였다.<sup>32)</sup>

동래권번 기생들의 놀음 나가는 것은 기업인 그 자체로 기생들의 중요한 예기로써의 활동이었다. 이런 동래 예기들의 화대를 받거나 놀음을 나가는 그 자체가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해 배고픔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는 예기와 미(美)를 미끼로 돈을 버는 기생들의 모습이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자연스레 권번 기생들이 놀음 나가는 모습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큰 관심거리이기도 했다. 이렇듯 동래 온천장에서 동래권번 기생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예기로써 기업하고 있었으며, 그 당시 기생들의 놀음이나 화대를 받는 것, 그리고 기생들의 기업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던 것이었다.

#### 나. 놀음이외의 공연활동

일제 강점기 권번에 소속된 기생들은 크게 기예기생과 화초기생으로 분류 되었다. 기예기생은 춤과 소리, 기악 등 예능에 탁월한 재주를 지닌 기생을 말하는 것이고, 화초기생은 예능보다는 얼굴과 용모가 더 빼어난 기생을 일컫는 말이었다. 따라서 권번의 전통 예능 교육은 주로 기예기생들의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공연활동 역시 자연히 기예기생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일제 강점기 기생들의 전통예술 공연은 1900년대부터 광복 무렵 권번이 폐쇄되기까지 꾸준히 전개되었다.<sup>33)</sup>

동래권번 공연활동의 경우는 동래의 행사가 있을 때나 유지의 집에서 초청이 올

32) 동래지편찬위원회(1983). 「동래」(부산: 세명출판사), p.419

33) 성기숙. “전계서”, p.9



때였다<sup>34)</sup> 그러나 이와 같은 공연을 하였다 것은 알 수 있었으나 정확한 연도와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었다. 대부분의 공연이 공연장에서의 공연 보다는 친목모임이나 연회에 초청되어 예기로서의 공연이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동래에는 기영회와 망순계라는 이 지역 아전집 자손 및 갑부집 자제들로 구성 된 친목 모임이 있었는데 이 친목모임이 동래권번의 기생들과 어울려 연회 되었다. 기영회는 매년 봄과 가을에 개최되었으며 밥상 놀음·검무·고무 등이 연행되었고, 이외 각종 기예가 연출되면서 춤에 재주 있는 한량들이 동래 기생들과 어울려 학춤을 즐겼다. 망순계는 매년 정월과 칠월에 정기 총회를 열었으며, 4월 모임에는 '불상초놀이'를 했고 10월에는 '단풍놀이'를 했었는데, 이때의 동래기생들의 악무로 푸짐하게 하루를 즐기면서 의례히 학춤을 추었다.<sup>35)</sup> 특히 기영회에서는 정기모임이 외에도 동래권번과 공동으로 성대한 판을 벌리고 이동백, 이화중선 등 당시 이름깨나 있었던 명인명창을 초빙하여 기예를 겨루기도 하였다.<sup>36)</sup>

또한 1937년 조선일보 주최로 개최 된 울산의 궁술회의 연무회에 초청되어 원정 공연을 간 일이 있었다. 울산으로 초대 되어 원정 공연을 갈 정도로 동래권번의 예기는 그 기량이 뛰어났으며 놀음이외에도 많은 공연활동을 가졌을 것으로 추측 할 수 있었다.

[1937. 4. 19 조선일보]

蔚山方魚津에서 靑鶴亭弓道會主催와 本報支局後援 來二十三日

방어진에서 전조선 궁술회 ... 울산 방어진 항내 청학정 궁도회는 창립 제1주년을 맞이하여 ... 4월 23일부터 동월 25일까지 연3일 동안 .... 여흥으로 는 매일 밤 동래권번 유명한 예기들이 총출연하여 연무회를 행할터로 대성황을 예상한다 ...

동래권번 기생들의 공연 활동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이루어졌다. 국외 공연 활동은 주로 일본에서 하였으나 그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으며 대략 1935년에서 1940년도 사이에 일 년에 한 두 차례는 원정공연을 가진 것으로 사료된다. 동

34) 국립문화재연구소(1989). 「승무살풀이춤-경상도편」(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p.187

35) 부산직할시(1993). 「부산의 문화재」(부산: 부산직할시), p.356

36) 국립문화재연구소(1989). 「입춤 한량무 검무」(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p.40

래권번의 예기들이 이와 같은 성격의 초청 공연을 가질 때에는 하나의 예술단 역할로 공연을 했던 것이다. 비단 일본초청 공연이 아니어도 동래권번의 기생들이 주체가 되어 공연을 하고 싶으면 동래 경찰서에서 주선하여 공연을 갈 수도 있었다.

... 일본도 가가 공연도 하고 예전에 동래권번에서는 일본을 많이 갔어. 판 외국에서는 많이 안가고. 일본에 공연한건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일년에 한 두 차례 불리가요. 일본사람들이 데리고 가가 그런 거 하고, 또 이쪽에서 교섭해가 “어디 좀 보내 주시오” 하면 동래경찰서에서 주선을 해가 그렇게 가 ... 예술단이지 동래권번 예술단이지. 몇 년도? 한 35년에서 40년 사이야 ...<sup>37)</sup>

또한 일 년에 두 번씩 동래권번에서 정기적으로 창극을 공연하는 관례도 있었다. 그때는 많은 동래권번 기생들이 즐거이 참가하여 흥겹게 행사를 벌이곤 했다.<sup>38)</sup> 그 창극 공연은 동래권번의 재정을 돕기 위한 공연이었으며 이렇게 모아진 수익금은 동래권번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쓰여 졌다. 현재 『동래국악진흥협회』에서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 학교를 지은 것은 아니고 국악원 ... 학교와 한가지다. 개인으로 재정이 없으니까 십시일반 학생들한테 얼마씩 부담을 해 놓고, 집 지을 때는 연극을 해서 돈을 모은 거야. 국악극, 창극 같은 거. 춘향전 같은 거. 이런거 해 가지고, 지금 있잖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sup>39)</sup>

이와 같이 동래권번에서 많은 공연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예상 할 수는 있었으나 일제 강점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공연활동은 좀처럼 찾기 힘들었다. 그러나 위에서 기술한 공연 활동만으로도 동래권번의 기생들은 그 당시 많은 공연활동을 가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동래권번은 권번자체의 공연 활동으로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었다. 동래권번 주최로 연주회를 열었는데, 그 당시 단소와 가야금, 가곡 등으로 유명했던 유 동초 선생을 초청해서 독주회가 열렸던 것을 1928년 조선일보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권번에서 독주회를 여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유 동초선생의 독주회는 대 성황

37) 문장원 인터뷰. 2004. 10. 27

38) 국립문화재연구소, “전계서”, p.40

39) 유선화 인터뷰. 2004. 11. 9

을 이루었다. 동래권변에서는 기생들의 공연활동은 물론 여러 유명 국악인들의 공연도 많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된다.

[1928. 3. 5 조선일보]

東萊에서 柳東初獨奏會.

東亞朝鮮 兩支局主催 朝鮮停樂界에서名聲이 높힌 全南井邑君 本籍을 둔 柳東初氏씨가 동래에 음을 期會 하야 當地東亞朝鮮兩支局 에서는 一〇殿 에게 古興的으로 들리기 위하야 去月二十九日下午六時에 當地東萊券番에서 柳東初獨奏會를 開催한 바를 正會員 三十餘命外 室外에 屯集集한 〇〇은 數百에 한 大盛況으로 동십이時〇 에 개최하였는데 柳氏로 말하면 幼時부터 閉〇이 되어 世上을 思觀하고 樂律에 〇미들무터이에 從事한지于今二十八年에 微妙한 境에 達하였다.

독주회뿐만이 아니라 동래권변에서는 명창대회도 있었다. 명창대회가 있으면 동래권변에 입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동기들은 마당댁이로 소리를 해주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찬조 출연 같은 것이다. 그리고 동래권변의 오래 된 기생들만이 그 명창대회에 참가 할 수 있었다.

... 명창대회가 있었지 명창 대회가 있으면 한번 씩 나가서 공연하고 그리고  
... 우리는 그때 어렵기 때문에 명창대회 하면은 마당 댁이로 소리를 한번 해주는 거야. 선배들이 명창 대회를 하는 거고 우리는 출연 못하지. 특별출연이지...<sup>40)</sup>

동래권변은 일제 강점기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통예능을 발전시키는 매개적인 역할을 하였다. 기생들의 공연활동만이 아닌 때로는 공연장으로써 때로는 대회의 장으로써 다양한 전통예술의 기능을 하며 우리 전통예능의 맥을 이어온 산실이었다.

## 2. 그 밖의 기생 활동

동래권변 기생들의 공연활동은 소위 ‘놀이’ 형식의 요리점이나 개인집에서의 기업으로서의 공연활동과 요리점 밖에서의 공연활동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 공연 활

40) 유선화 인터뷰. 2004. 11. 9

동 외에도 기생의 활동은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기생이라는 신분과 시대적인 상황은 다양한 공연 활동에 관한 자료를 남기기에는 충분한 조건 일 수 없었다. 기생들의 공연 활동은 권변이나 요리점에서는 물론 사회적인 상황과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어서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사료된다.

평양기생권변에는 평양기생학교가 있었듯이 동래권변에도 1928년부터 ‘북명학원’이라는 기생학교가 있었다. 그러나 그 학원의 존속여부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단지 권변 사무소를 신축하고 그 부지에 학원을 만들었으며 어린 기생들을 받아 들여 국어와 기타 필요한 과목을 가르쳤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1928. 3. 30 매일신보]

경남 동래군 동래면에 있는 예기권변에서는 금 권변 사무소를 신축하고 한 번으로 북명학원이란 기생학교의 발간을 붓치고 지난 一日에 개원식을 거행하였는데 이 학원에서 배울 학생은 물동기생들이며 교사는 전 동래보 교장이든 반구장생 시인바 교수 과목은 감술 국어 기타 필요하얀 과목으로 상당산 성택이 잇을 것을 기대한다는데 원래 동래에는 온천장이 잇기 때문에 불황인 썰라도 동래기생 卍기명은 비교적 생활이 안정되어 흥망한 모양 이나다...

이 북명학원이외에도 동래기생들이 학교를 설립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동래기생 인 유선(柳仙), 소춘(小春), 비봉(飛鳳)도 여학교를 설립하였다는 기록은 있으나 학교명 등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현존하지 않았다.<sup>41)</sup> 이처럼 동래권변의 기생들은 평양기생학교와 같은 학교를 설립하려고 했으나 현재 정확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학교가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기생들의 공연활동 외의 활동은 학원이나 학교를 차린 것만은 아니었다. 1934년에는 경성 중앙방송국에서 동래권변 기생들이 연주하는 정악(正樂)을 방송하기도 하였다. 그 당시 동래권변 기생들의 기예는 방송을 할 만큼 뛰어 났으며, 그 시절 유일한 대중 매체인 라디오에 방송을 했던 것을 보아 그 유명세가 전국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41) 부산직할시(1993). 「부산 시사 一」(부산: 부산직할시), p.916

[1999. 11. 22 부산일보]

... 경성의 중앙방송을 중계한 ... 34년 1월에는 동래권변 기생들의 조선정  
악과 영주동 봉래권변 예기들의 조선가요를 방송하기도 했다 ....

위의 공연 활동 이외에도 동래권변 기생들은 여러 사회운동에도 참가 하였다. 개항 후에는 부산지방민의 항일저항의식에 참가하여 극문으로 만장(挽章)을 지어 올려 통곡하였으며 물산장려운동에서는 조선 물산 장려와 소비 절약을 실행하기로 하여 의복은 물론 토산을 사용하고 담배까지 끊기로 동맹한 동시에 물산 장려하는 노래를 지어 부르기도 하였다. 이렇듯 동래권변의 기생들은 놀음이나 공연활동만으로 만족 하지 않았다. 기생학교 설립을 추진하였으며 방송 활동으로 전통 예능을 알리기도 하였다. 또한 물산장려운동과 항일저항의식과 같은 사회 운동에도 참가하였다. 동래권변의 기생들은 놀음이나 놀음이외의 공연활동 외에도 폭 넓은 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V. 결 론

본 연구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 부산 동래구 온천장을 무대로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친 동래권변의 학습내용과 공연 활동을 살펴보았다. 동래권변의 학습내용과 공연 활동을 밝혀보고자 한 이유는 일제 강점기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끊어질 위에 놓인 전통예능이 권변이라는 특수한 곳을 통해 그 명맥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래권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동래권변에 대한 문헌 자료의 부족과 그 당시 권변 출신의 예능인들이 대부분 타개하였으며 현존 하는 예능인이 있어도 고령화나 병환으로 인해 인터뷰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점은 동래권변의 기생 출신이었다는 신분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인터뷰에 쉽사리 응해 주지 않는 것이다. 이 번 연구 역시 권변 출신인 예능인을 찾아 인터뷰를 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 다행히 문장원과 유선화의 도움으로 그 당시 동래권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 강점기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권변은 또 하나의 전통 예능의 명맥을 이어 준 전통 예능의 산실이었다. 일제 강점기에 전통 예능이 쇠퇴의 길에 접어들었으나 권변을 통해 어렵게나마 전통 예능의 맥을 이을 수 있었다. 동래권변은 부산지역의 끊길 위기에 놓여 있던 전통 예능의 맥을 동래권변이 이어 주는 역할을 하였다.

둘째, 동래권변은 하나의 전통예술 학원이었다. 동래권변의 기생들은 예기가 되기까지 가무를 기본으로 음률, 한문, 서화, 예절 교육까지 학습하였다. 동래권변의 학습 기간은 3년이었으며 필수 과목인 판소리 외에도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른 장르의 전통 예능을 배울 수 있었다. 권변은 전통예능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열린 공간이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공간인 동래권변에서 기예를 익힌 기생들에게 가무·음곡을 배운 이들이 현재 인간문화재나 전통예능인이 된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동래권변은 전통 예능인 양성소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동래권변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전통 예술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학습 공간이었으며 오늘의 전통 예능인들을 양성해온 하나의 전통예술 학원이었던 것이다.

셋째, 동래권변의 예기들은 다양한 성격의 공연을 했다. 즉, 동래권변은 하나의 예술단의 성격을 갖기도 했으며 전통 예능을 위한 공연장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당시의 울산 원정공연과 일본 원정공연을 통해 동래권변 기생들이 국한 된 요리점에서만 공연을 하는 예기가 아닌 하나의 예술단 단원의 역할도 같이 겸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동래권변에서 주최로 열리는 명창 대회라든지 독주회를 하는 공연장의 기능도 하였다. 이와 같은 동래권변의 다양한 활동은 전통 예능의 계승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동래권변은 일제 강점기에도 우리의 전통예능을 전승·발전시킬 수 있었던 유일한 공간이었으며 전통 예능의 산실이었다. 오늘날 부산지역의 전통 예능이 이어져 내려 온 것도 동래권변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동래권변이 오늘의 전통 예능을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아직도 권변에 대한 불투명한 시각과 연구의 미비한 점을 부인 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모쪼록 본고를 통하여 권변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동래권변에서 활동 한 선생과 예기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학습내용에 대한 연구를 향후 과제로 하고 싶다.

## ■참고문헌

- 국립문화재연구소(1989). 『승무살풀이춤-경상도편』, 국립문화재연구소.  
 \_\_\_\_\_ (1989). 『입춤·한량무·김무』, 국립문화재연구소.  
 동래구지편찬위원회(1995). 『東萊區誌』, 부산직할시 동래구.  
 동래지편찬위원회(1983). 『동래』, 세명출판사.  
 박두석(1991). 『부산의 예술문화』, 부산일보사.  
 박원표(1965). 『부산의 고금』, 현대출판사.  
 \_\_\_\_\_ (1966). 『개항90년-부산의 고금시리즈 2』, 태화출판사.  
 부산직할시(1993). 『부산 시사 一』, 부산직할시.  
 \_\_\_\_\_ (1993). 『부산 시사 四』, 부산직할시.  
 부산일보사(1976). 『개항백년 - 부산사재조명』, 부산일보사.  
 성기숙(1999). 『한국 전통춤 연구』, 현대미학사.  
 조선연구회 편(1918). 『조선미인보감』.  
 최해군(1997). 『부산 7000년, 그 영욕의 발자취②』, 부산을 가꾸는 모임.  
 \_\_\_\_\_ (2003). 『부산에 살며, 부산을 알며 : 부산의 매력, 그리고 이야기 한마당』, 해성.  
 김영희(1999). “예단일백인 기사 중 기생에 대한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10집』, 한국무용교육학회.  
 \_\_\_\_\_ (1999). “일제시대기생조합의 춤에 대한 연구”, 『무용예술학 연구』. 무용예술학회.  
 성기숙(1997). “기생과 일제강점기 권변의 실체③”, 『무용예술 5월호』.  
 \_\_\_\_\_ (2004). 『일제강점기 권변과 기생의 전통춤 연구』, 한국무용예술학회 학술 심포지엄.  
 신문자료  
 조선일보. 1928. 3. 5  
 매일신보. 1928. 3. 30  
 조선일보. 1937. 4. 19  
 부산일보. 1999. 11. 22

인터뷰 자료

문장원 (중요무형문화재 18호 東萊野流 예능보유자)

유선화 (동래권번 출신 마지막 소리꾼)

논문투고일	2008년	6월	28일
심사일		7월	3일
심사완료일		7월	20일



**Abstract****A Study on Dongrae Gwonbeon**

- Centering on the contents of learning and performing activities -

Lee, Ju-Hee · Choo, Jung-geum  
*Professor of Dance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student at Chung-Ang University*

This is a study on Dongrae Gwonbeon (association of singing and dancing girls), which was famous nationwide and in charge of the function of traditional public entertainments on the stage of Oncheonjang in Busan, at the crucial moment of demise of traditional arts owing to the imperialist Japan's liquidation policy of national culture. Especially, the investigator focused on the contents of learning and performing activities.

When the Gyobangcheong, an affiliated office of Busan Susa (governmental agency), was dismantled with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in 1910, the so-called Hanryangs who were enjoying their lives collected contributions to establish autonomously Dongrae Gisaeng (singing and dancing girls) Association, the predecessor of Dongrae Gwonbeon. Its title was once changed to Dongrae Yegi (Gisaeng) Association in 1912, but called as Dongrae Gwonbeon (Japanese style term) until the 8 · 15 liberation. Although Dongrae Gwonbeon played a great role of promoting Korean classical music and Busan's traditional public entertainments, now it only maintains its pulse as a corporate juridical person, 『Dongrae National Classical Music Promotion Association』.

Dongrae Gwonbeon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history of Korean dancing and in the development of Busan dancing. Busan's traditional public entertainments has been transmitted and developed by Gwonbeon Gisaengs at the crucial moment of demise after the dismantlement of Gyobangcheong. In addition, it was the only place in which our traditional public entertainments were taught under such a unique condition as Japanese occupation by force.

Thus, Dongrae Gwonbeon is meaningful in the history of Korean dancing. It

was a delivery room of traditional public entertainments at the crucial moment of demise of it at the times of Japanese occupation by force. Furthermore, it was the only academy of traditional arts in which traditional public entertainments were taught. It also played the role of training place of traditional public entertainers. When it was difficult to stage a performance, Dongrae Gwonbeon was the stage of performance and the Gisaengs of it became a performing arts company. Just like this, Dongrae Gwonbeon has great values in the history of Korean dancing.

keywords: Dongrae Gwonbeon(동래 권변), Gwonbeon(권변), Gisaeng(기생), Yegi(예기), Busan(부산)